

제12회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기 조 연 설

- 일 시 : 2004. 5. 24(월) 13:00-
- 장 소 : 제주 KAL 호텔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존경하는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이사장님, 한스 자이텔 재단 Bernhard Seliger 소장님, 부만근 제주대학 총장님,

그리고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이곳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위해 먼 곳으로부터 오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마음으로부터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흡수통일이나 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양상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우리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보름 후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4주년이 됩니다.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paradigm이 바뀐 이후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남북간 실질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일상화,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총 38회의 남북대화가 106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이후 106회 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중 장관급 회담은 14차례, 차관급 회담은 8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실시한 후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까지 2년 동안 정상회담이 2차례, 장관급 회담이 70여 차례, 국과장급 회담이 200여 차례 개최된 것을 비교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면서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로 써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6,303명이 남북을 왕래하였고, 남북 교역 규모도 7억불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간 접촉의 면과 공간을 늘리는 가운데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두가지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인사의 남측 방문이 있었습니다. 동북아 전력문제 국제회의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회의에 참석할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또, 앞으로 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민간급 공동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접촉의 면과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군사부문의 협력을 유발시켜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남북간 끊어진 철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연내 가능한 구간 내에서 시험운행을 하려하고 있으며, 도로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성공단 사업은 공사가 이미 착수되었고, 하반기 부터는 시범단지에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무장 지대를 넘나들면서 진행되는 경협사업은 남북 군대간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인프라도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됩니다만, 경제협력에 상응하는 군사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핵문제라는 악재 중 악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기 국면이 없었던 것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서자과 트트하 아비 이 우지가 레브저케이 미비타이 더 었지만 이제는 남북관계의 안정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안보

참석자 여러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냉전 이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 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이미 '84년 합영법 제정, '91년 나·선 특구지정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제에 미칠 외부사조의 유입을 두려워 한 변화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경제난 회복에도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지만, 9.11 테러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02.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그 이후 경제조치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미봉적 처방만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 전환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급제를 통한 생산·유통이 아니라 종합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조치가 단순한 「change」가 아니라 「reform」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내각에 채용되고, 기업의 책임자가 되고, 남북 대화의 대표가 되는 것은 세대 교체를 통해 개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절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實利, 實績, 實力이라는 이른바 '3實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실리추구, 생산활동의 독려는 북한주민들의 의식마저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 사회분야에서는 실질적(substantial)이고 동태적(dynamic)인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추세와 방향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irreversible)고 봅니다.

중국, 베트남의 전례를 감안한다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는 중국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압축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이들 보다 빨리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완전한 개혁, 개방으로 이어질지, 또 얼마나 북한 경제난 회복에 기여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대외 관계 개선문제와 연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결코 바람직한 카드는 아니지만, 북한이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big deal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먼저 요구수준을 낮추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지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냉전적 '대립의 질서'를 화해와 공존을 위한 '협력의 질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대외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생의 남북 화해협력은 국가이익에도 부합하고, 균형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민족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사자로서 우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고,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세계이익으로 발전시키는 교량역으로서 동포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동포사회의 합일된 여론은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외동포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주재국 각국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신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 자이텔 재단에 감사드리며, 세미나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